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12/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6	스스로행복하라:법정스님의대표수필29편수록(2판)	법정	샘터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법정스님숨결:법정스님열반10주기리커버에디션	변택주 지음	큰나무
3	대승불교의가르침(불교대학강의노트2)	이철헌 지음	아름원	8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법상의슬기로운생활수행	법상스님	열림원	9	길이아니면가지말라:불일암사계	법정/최순희 사진	책읽는섬
5	마음에따르지말고마음의주인이되어라:법정의산중편지	법정/박성직 엮음	책읽는섬	10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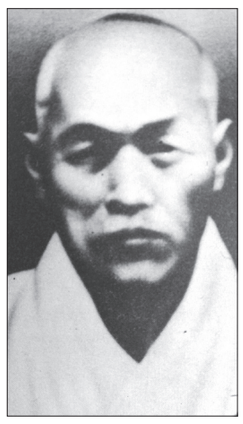
책세상

인물로 보는 동국대 인문학 전통·계보



동국문풍
윤재웅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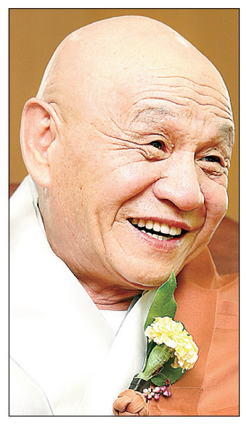
단독 논문으로 발표했던 글들 모은 것
인문학 전반서 보이는 동국 정신 조명
석전 · 미당 등 동국 대문호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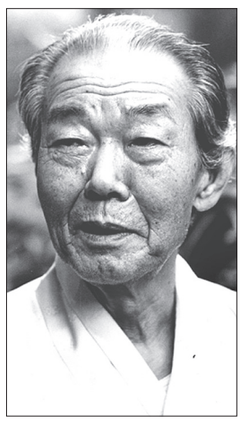
석전 스님



만해 스님



무산 스님



서정주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최근 은사에 대한 그리움과 모교 문학의 전통에 대한 애정으로 책 4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책 〈동국문풍〉은 그 중 한 권으로, 동국대 인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인물 중심으로 조명한다. 책은 그동안 단독 논문으로 발표했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동국대는 118년의 역사 동안 만해 한용운부터 미당 서정주 등 대한민국 문학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매년 꾸준히 신춘문예 당선자를 양성하고 있다. 동국대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 국문과 출신으로 미당 서정주 시인의 마지막 세대의 제자이며, 이후 모교의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여 년간 후학을 길러온 국문학자이자 시인이다.

책 〈동국문풍〉과 함께 출간한 책은 미당 서정주 문학의 기원을 찾아가는 문학 여행기 〈질마재 이야기〉, 미당을 주제로 그간 집필해온 21편의 논문을 집대성한 〈서정주학파 1, 2〉이다. 동국대가 조계종립 사학인 만큼 동국대의 모든 학사의 근간에는 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 문학을 넘어 인문학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동국의 정신을 조명하는 책이다.

〈동국문풍〉은 동국대 인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인물 중심으로 서술한 책으로, 윤재웅 총장이 계보의 당사자로서 계보를 조명하고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비롯됐다.

〈동국문풍〉은 석전 박한영을 시작으로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조지훈, 장호, 마지막으로 무산 오현 스님까지 동국을 거쳐 간 여러 대문호의 작품을 분석하고 비평하면서 문학의 핵심과 세상의 미래를 진단한다.

〈동국문풍〉의 중심에는 미당 서정주가 있다. 저자는 미당으로 인해 문학을 사랑하게 됐고, 사제지간으로서 평생 교유했다. 저자에게 은사가 있듯이 서정주에게도 은사가 있다. 서정주를 따라가다보면 그의 스승인 석전 박한영으로 이어진다. 박한영은 선교겸전의 대석학으로 서정주의 불교적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에도 닿는다. 박한영과 한용운은 동국문풍의 근대적 기원이다. 박한영은 동국의 불교정신을, 한용운은 동국의 문학 정신을 일깨웠다. 박한영은 대석학이자 '천재들의 스승'이었으며 한용운은 국가와 민족과 불교를 혁신하려는 개혁주의자요 실천자였다. 두 사람의 훈도와 감화력이 한국 근대불교계의 교육적 요람이 되었으며 동국문풍 자긍심의 연원이라고 볼 수 있다.

미당과 동시대에서 시를 놓고 매진했던 조지훈, 정지용 시인도 동국문풍의 대표 이름이다. 현대시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만해의 시 정신을 오늘날 계승한 오현 스님도 살핀다. 파격적 도전으로 새로운 차원의 미학을 연 장호 시인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제1장 '석전 박한영 한시의 한글 번역 문제'에서는 석전 박한영의 생애와 〈석전시초〉의 간행 경위, 미당의 〈석전 박한영 한시집〉 번역의 의의와 그 특징 등을 다룬다.

△제2장 '한용운의 사상과 한시에 나타나는 불이론'에서는 한용운 문학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불이론을 살피고, 한용운 사상의 불이론적 성격과 그 기원 등을 다룬다.

△제3장 '〈님의 침묵〉에 나타나는 사투리의 양상'에서는 〈님의 침묵〉에 나타난 사투리의 에크리튀르 등을 다룬다.

△제4장 "아유일권경' 게송의 문화사적 고찰'에서는 '아유일권경' 게송의 발견과 계보 추적 등을 다룬다.

△제5장 '서정주가 번역한 만해의 한시'에서는 미당 번역의 의의와 특성 등을 다룬다.

△제6장 '한용운 한시에 대한 서정주의 주석'에서는 미당의 한글시로 바꾼 한용운의 한시 등을 다룬다.

△제7장 '정지용의 〈백록담〉과 서정주의 〈화사집〉'에서는 정지용이 끝나는 곳과 서정주가 시작하는 곳, 텍스트의 탄생과 미학적 배경 등을 다룬다.

△제8장 '한용운과 조지훈의 불교문학'에서는 만해와 지훈의 친연성, 문화계보학으로서의 만해와 지훈 등을 다룬다.

△제9장 '조지훈 불교문학의 형성 배경'에서는 청년 조지훈의 공부 과정 연구에 대한 필요성, 한문 리터러시의 습득과 활용 등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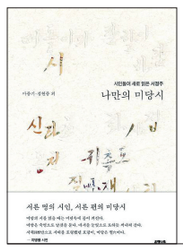
△제10장 '조지훈의 추천 탈락시 〈화련기〉일까 〈화비기〉일까'에서는 뒤바뀐 제목, 조지훈전집의 간행과 화련기의 등장 등을 다룬다.

△제11장 '미당의 광기와 지훈의 기율'에서는 기율과 광기, 조지훈과 기율, 서정주와 광기, 추수옥골 불치의 슬픔을 다룬다.

△제12장 '장호의 시'에서는 다양한 재능 갖춘 교양인 장호, 장호의 초기 시의 세계, 시집 〈돌아보지 말라〉, 시집 〈동경 까마귀〉 등을 다룬다.

△제13장 '조오현의 선시'에서는 오현 스님 시의 중요성, 오현 스님 한글 시조의 미학을 다룬다.

오늘의 시인이 다시 읽어주는 미당 詩



나만의 미당시
마종기 · 정현종 외
은행나무 / 1만8천원

"미당시 속에는, 시인의 높은 시안을 자극할 만한 빌미가 풍성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풍성한 시안이 한곳에 모인 일은 예사가 아니다."

20대 신예부터 80대 원로까지 서른 명의 시인이 미당의 시를 읽어준다. 미당의 첫 시집 〈화사집〉(1941)부터 마지막 시집 〈80소년 떠돌이 시〉(1997)까지 총 15권의 시집으로 한국 현대시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미당 서정주. 그 어느 시인도 흉내낼 수 없는, 낯설고 아름다운 미당의 시를 마종기·정현종 등 현재 활동 중인 서른 명의 시인들이 하나의 산문으로 각기 다른 '나만의 미당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당시의 소중함과 한 편의 미당시가 한 명의 시인에게 운명으로 교감되던 그 빛나는 시적 순간에 대해 말한다. 더불어 미당시에 대한 시적·언어적 해석과 현재의 시문학적 관점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아낸다. 이 한 권의 산문집을 통해 한국 현대 시문학의 오래된 질서 같은 미당시의 '새로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빛나는 미당 문학의 미학적 가치를 들여다본다.

미당, 미당 서정주. 우리 근현대사에 남아있는 그 이름은 어느 쪽에서 불러도 '시인'이다. 이남호 시인은 "우리 주변에는 정치적 이유로 내팽기침을 당하고 있는 미당시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여전히 있다"며 "서른 명의 시인과 서른 편의 미당시가 만나는 자리는 각별하고, 그 마음은 지극하다. 거기에는 한 권의 책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소중함이 있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서른 겹의 시간, 미당에 대한 서른 명 시인들의 기억과 회상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나만의 미당시〉는 서른 명의 시인이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붙잡아 둔 미당을 재현하고 감응한다. 현재에서 미당시가 발화되며 각자의 과거에서 교차한다. 어느 시인에게는 "오래 헤어졌던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가슴 벅찬 행복감"(마종기)으로 미당시가 50여 년의 시간을 횡단하고, "종종 시 쓰는 일이 힘에 부칠 때, 미당의 시를 펼쳐"(고명재) 읽는 시인에게는 미당시가 현재의 시적 발화 순간에서 호명된다. 때론 어느 시인에게는 미당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려보기도(박형준) 하고 또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이병률)듯 시적 순간의 가장 밝은 빛을 보기도 한다.

미당시를 중심으로 기억되는 시적 순간들에서 서른 명의 시인들은 현재 자신의 시 쓰기와의 접점을 이루어낸다. 미당시가 가져오는 풍경들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한백양) 본래 기억이나 회상이 그러하듯, 불특정하게, 비정형적인 운동성을 지닌 채 미당시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구성(이은규)되기도 한다. 어느 시인은 과거 미당에게서 밀려왔던 이성 혹은 지혜 혹은 감정 같은 것들이(장석남)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처럼 서른 편의 짧은 산문에서 서른 편의 미당시에 대한 기억이 복원되고, 회상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미당시로 다가온다.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솟아오른 미당시의 잔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풍경(권승섭)을 말하기도 한다. 시인들조차 그때에는 알지 못했던 미당시들이 현재의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런 대화들이 모이고 모여 미당시에 접촉했던 서른 명의 시 쓰기가 미당시 위에 포개진다. 〈나만의 미당시〉는 서른 명의 현재 진행형의 시인들이 기꺼이 동참해 마지않는 또 다른 미당의 시적 여정이다.

박재완 기자

수천 명의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사유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
특별한 '서양철학개론' 강의!

'지식'이 되는 철학에서 '지혜'가 되는 철학으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 주는 서양철학 24강!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서양철학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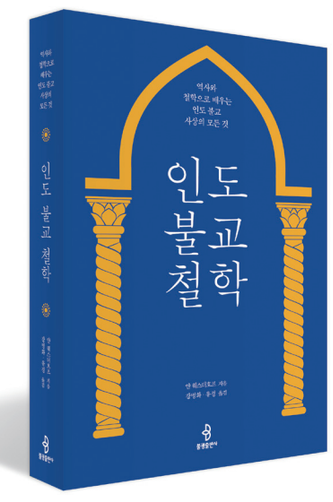


미네소타 주립대학
서양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
256쪽 | 18,000원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지는
불교의 세계, 광활한 사유의 지평을
이 한 권에 담았다!

2,600년 불교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황금시대
불교사 명장면들로 그려 낸 인도 불교철학의 정수!

역사와 철학으로 배우는
인도 불교 사상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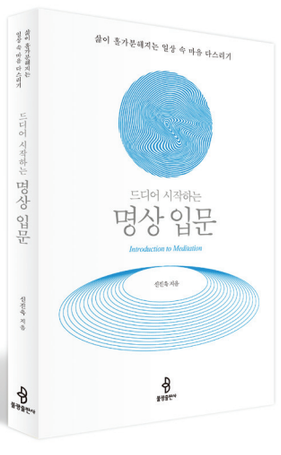


인도 불교 철학
얀 웨스터호프 지음
강병화·유경 옮김
600쪽 | 30,000원

명상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명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
단단한 마음의 코어 근육으로
삶이라는 바다에서 우아하게 서핑하기

삶이 홀가분해지는
일상 속 마음 다스리기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신진욱 지음
232쪽 | 18,000원

명상 입문자들을 위한
저자 강연 진행

일시 2024. 12. 14.(토) 오후 3시
장소 명상센터 센터원 Center One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11)
접수 및 문의 불광출판사 010-3322-8940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